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5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92)	봉헌 (211)	성체 (172)	파견 (480)
---------	---------	----------	----------	----------

<p>제1독서 이사 11,1-10 화답송 시편 72(71),1-2,7-8,12-13,17(◎ 7나ㄷ 참조)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2독서 로마 15,4-9 복음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태 3,1-12</p>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7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24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감사헌금: \$15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0	\$59	\$4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21	손 아놀드/ 손 쟈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 월 2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1 월 5 일 입니다.

남가주 성당 대림 판공성사 일정

12/10(화)바실성당, 12/12(목)성삼 성당, 12/16(월)성토마스 성당
12/17(화)성바오로 성당, 12/18(수)성마태오 성당,
12/19(목)백삼위 성당, 12/20(금)성아그네스 성당.

우리 성당에서는 이번 대림특강 초청강사 신부님은 없습니다.
우리 성당은 수요일 제외한 모든날 미사 30 분 전에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Virgen de Guadalupe Celebration

December 11-12, 2019. It will begin with Mass on
Wednesday December 11, 2019 at 10:30pm and
Mass on Thursday December 12, 2019 at 7:00pm.

어린이 성가대 성탄 공연: (Dec 13th at 6:00pm \$10.00)

18 세 미만은 무료입장 입니다.

대림 피정 안내: 오늘 오후 7시

오늘 오후 7시 본당에서 우리 요아킴 신부님을 모시고 대림 피정이 있습니다.

교우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빠야따스'에서-1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중화관구)-

제가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간 곳은 '빠야따스Payatas'라는 곳입니다. 빠야따스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외곽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빠야따스'라는 공식 이름 대신 필리핀 현지어로 '약속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루뽕뽕아꼬'라는 자신들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매립장이 생기면서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치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 현재는 비록 쓰레기를 뒤져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지만 언젠가는 가나안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신학생 때였습니다. 실제로 본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동네 뒷산만큼 쌓여있는 '쓰레기 산', 한쪽으로는 계속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집이라고 표현하기조차 힘든 거적땀기로 열기설기 엮어 놓은 엉성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기대할 수도 없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와 가스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만들어낸 더럽다 못해 시커먼 빛깔의 도랑물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난을 치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도 말리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탓이겠지요. 하지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왔고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제가 찾아갔던 바로 다음날 새벽에 마치 산사태처럼 쓰레기 산이 무너지며 집들을 덮쳐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이 결국 그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삶을 마감해야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사제가 되어 이곳으로 자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 동냥하고 있는 너무나 야위고 초라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워 하느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 노인을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하셨나요?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하느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서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대책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울주보 중에서-